

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 도입 가시화

도내 교원단체, 서 교육감 만난 자리서 제도 도입 요구
서 교육감 “내달 4일 일과 후 추모행사 지지, 적극 동참”

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8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전라북도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실천교

사, 전북혁신넷, 전북좋은교사 등 6개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현장에 있는 교원들의 생생한 목소리

를 듣는 게 목적이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서거석 교육감에게 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 도입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매뉴얼에 학교장 책임을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이어서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는 교사들의 의지에 공감한다”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육 활동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9월 4일 추모행사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추모행사를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서 교육감은 “이미 밝힌 대로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한다”면서 “다만 교육부가 연가나 재량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 조정하겠다고 밝힌 이상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는 9월 4일 오후 5시 30분 도교육청 앞에서 일과 후 추모행사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 교육감은 “일과 후의 추모행사에 적극 지지한다”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동참하고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8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전북도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실천교사, 전북혁신넷, 전북좋은교사 등 6개 교원단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북도청, 14개 시·군 교육청 및 지자체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자체와 협력 학령인구 감소 등 과제 대응

도교육청, 전북도·14개 시군 교육청 등과 합동 워크숍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북도청, 14개 시·군 교육청 및 지자체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청-지자체 교육협력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 소출, 소멸위기 마을 등 지역의 당면과제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자고 마련됐다.

또한 교육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지원청-지자체 분임 토의를 통해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이날 교육협력 우수사례로는 △정읍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해외역사 문화탐방 △부안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활용, 다나무한지체협관 운영 △순창군 농촌유학 프로젝트 △글로벌 교육도시로 부상하는 부안군의 사례가 발표됐다.

이와 함께 시·군별로 분임토의를 갖고, 학교복합시설 모델 발굴·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지역교육행정의 회 안전 발굴 등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도 니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역의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청과 도교육청, 그리고 14개 시군 및 지역교육청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각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한 행정적·재정적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이번 워크숍이 지역별 교육협력 우수사례를 나누고 나아가, 각 기관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살피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고도화

전북대, 과기부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선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고도화 해 지역발전의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인력양성과 신기술 육성, 기술이전 및 혁신창업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구소 본원과 지역대학 공동 주관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난 3~6월까지 권역별 2곳씩 총 8개 플랫폼을 사전 선정했다. 이후 본 사업에 전북대 등 최종 4개 권역의 플랫폼이 선정됐다.

전북대는 키스트(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원, 그리고 키스트 전북본원과 플랫폼을 구성, 호남·제주권 대학 가운데는 유일하게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선정으로 오는 2027년 12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총 112억5,000만 원을 투입, 이 중 전북대는 총 연구비의 40%인 45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지속가능한 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육성 산업을 위한 현장 연구 프로그램을 대 학원 석·박사학위과정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과 연계된 전라북도 지역 산·학·연 융합연구 사업을 통해 12억5,000만원의 전북대 대응부지도 확정, 2028년까지 5년 간 매년 키스트 20억원, 전북대 10억원, 지방비 4억2,500만원 등이 투입된다. /정은성 기자

JBNU-KIST 산·학·연 융합학과를 신설, 국립대 최초 ‘학연교수제’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융합과목 프로그램 구성 및 기업공동프로젝트 참여로 1단계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을 더욱 견고히 다져 2024년부터 2단계로 전북대-KIST 공동 산·학·연 교육 활성화를 통한 연합교육 과정 운영 등 사업 고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2026년도 3단계에서는 JBNU-KIST 산·학·연 융합학과 내 연수생 제도를 운영해 학위과정과는 별개로 현장연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연수 프로그램을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책임을 맡은 전북대 이승희 교수(고분자나노공학)는 “전북지역 내 탄소복합소재 및 2차전지 관련기업 수요가반 실무 중심형 교육을 통해 융·복합 인력 등을 활용한 우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3년 하반기 교원 퇴임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올 하반기 교원 퇴임 기념 정부포상 전수

8월 말 정년퇴직 65명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3년 하반기 교원 퇴임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 퇴임 기념 정부포상 대상자는 총 65명이다. 이들은 이달 말 정년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도내 유·초·중등 교육공무원으로 학교, 교육청, 교육부의 엄정한 검증을 거쳐 공직생활을 흠결 없이 수행, 정부 포상을 받는다. 수상자는 △황조근정훈장=전주중심

초등학교 이강영 교장 외 19명 △홍조근정훈장=군산우리별유치원 조윤영 원장 외 17명 △녹조근정훈장=신의중학교 김양순 교사 외 9명 △옥조근정훈장=군산고등학교 최숙희 교사의 10명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수상자 한 명 한 명에 훈포장과 표창을 전달하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에 한 평생 헌신한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도전과 경협이 기다리는 여러분의 미래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생 금연 실천 향상 노력은 계속’

도교육청, 금연결심 공감&동행 캠프 개최

학생들의 금연 실천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기당 20명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금연결심 공감&동행 캠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흡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금연 동기 부여 및 또래 간의 금연 실천 공감과 연대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1기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3박4일간 무주 반딧불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다. 2기는 10월 17~20일, 3기는 11월 14~17일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금연 동기유발 체험형 교육 △심리극 및 집단상담, 개별 상담 △습

연유구 및 금연 증상 대처 운동 요법 △금연결심 발표 및 소포 등 금연실천 공감 활동 등이 있다.

특히 캠프 기간 금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학생은 우수학생으로 선정·시상할 예정이며, 캠프 종료 후에도 개별 상담과 추수지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금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서기 문체건강과장은 “이번 캠프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금연 의지를 높이고, 또래중심의 신체활동과 금연 실천 방법 학습을 통해 금연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눈높이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감과 함께하는 IB 관심 교사 간담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9일 5층 회의실에서 초·중등 교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교육감과 함께하는 IB 관심 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IB 프로그램의 자연 확대를 위해 현장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더불어 IB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자리에는 서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IB 교사 연구회 소속 교사, 2023 전북미래학교(IB 준비학교) 교사, 2024 전북미래학교(IB 프로그램) 교사 등 초·중등 교사 50명과 IB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IB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미래교육과의 IB 프로그램 추진계획 안내 △IB 학교 운영 방향 안내 △참석 교사 협의회 등으로 이뤄졌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노동인권·퇴직연금 연수

지방공무원 300여명 대상... 인권보호·퇴직연금제 이해 도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9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지방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노동인권 및 퇴직연금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중심 이해 교육과, 교육수요자 맞춤형 퇴직연금 이해 등 일상에서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자존감을 회복해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대별 특성에 맞춰 2080세대는 ‘노동인권 보호’, 4050세대는 ‘퇴직연금제도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현장 사례로 본 노동인권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 등이다. /정은성 기자

이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양성대 전문강사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노동인권의 공극점을 해소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안진우 강사가 개정된 연금 법령 이해를 통한 업무의 전문성의 향상을 도왔다. 심화형 노사협력과정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현장노동인권이 보장되고 퇴직연금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현장 지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연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전주교육대학교 박병춘 총장이 (사)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운영 회장의 지목을 받아 29일 일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 시작된 일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 실천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봉지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거나, 일회용품보다는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박병춘 총장은 다음 참여자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이경운 대표 이사를 지목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호남 소아·청소년

당뇨캠프 참가... 예술치유 진행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는 최근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라북도교육청, 호남소아·청소년 내분비교육센터에서 공동 운영하는 제 15회 호남 소아·청소년 당뇨캠프에 참가해 예술치유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도내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우의 자가 관리능력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당뇨 관련 이론 강의, 자기혈당 및 만성질환 관리법, 건강한 식단 관리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및 관계 형성, 수련 활동, 힐링 레크리에이션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음악과 미술을 접목한 예술치유프로그램이 처음 시도됐다.

이번 당뇨캠프에는 예술심리치료학과 소혜진 교수, 소라영 초빙교수를 비롯한 음악심리치료전공 대학원 및 학부생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